

## 다문화가정의 국적별 주거요구 비교분석 - 전주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tial Demand of Multi-culture Families by Their Nationality - with a Focus on Immigrants by Marriage from China, Vietnam and Cambodia Living in Jeonju-si -

이 흥 성\*

LI, Hong-Cheng

이 연 숙\*\*

Lee, Yeun-Sook

#### Abstract

Recently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increasing steadfastly in Korea and its diversity of nationality has been expanding also.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s are actively studying on such trends in population to find out proper measures to cope with such social changes. But their studies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is the base of the essential three factors of life, clothing, food and housing are not sufficient enou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and diversity about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multi-culture families that are the base of their life. It is necessary to comparatively study the residential status and demands of these immigrants by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study the residential status and demand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ie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immigrant women by marriage from China, Vietnam and Cambodia who take the high portion of immigrant women in Jeonju-si and survey was used as study method.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status and demands of immigrant women showed certain differences and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s for them in future based on these differences was propos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the residential conditions of the multi-culture families in order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society of multi-culture.

Keywords : Multi-culture Families, Marriage Immigrants, Housing Condition, Housing Needs

주 요 어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주거실태, 주거요구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Gwon(2012)에 의하면, IMF를 지나 1980년대 말부터 거세게 밀려온 외국인의 국내유입은 크게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두 집단으로 자리한다. 80년대 말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결과 국제결혼은 지역사회 혼인형태로 자리 잡았다.

\*정회원(주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Yeun-Sook Lee,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yeunsooklee@yonsei.ac.kr

이 논문은 2013년 이흥성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연구임.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 09도시재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음.

행정안전부(2011)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계 주민 수는 1,265,006명(2011.6)으로 총 인구대비 2.5%로 나타났다. 2005년 13.5%증가를 정점으로 매해 1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144,681명으로, 그 중 여성이 86.4%를 차지하였다. 1980~1990년대는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여성의 입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및 타이 등 국적이 증가하는 현실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가 매우 다양하고 다문화가정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다문화가정현황에 입각하여 볼 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서 유래된 만큼 다문화가정 또한 경제적 여건이 보다 어려운 농촌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자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 또한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이 한국 농촌 지역보다도 더욱 어려운 국가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여성 인 점에서 다문화 가정은 농촌총각의 결혼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녀의 양육, 교육 등 압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등 현실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최근 정부와 여러 학계에서는 이러한 인구변화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대안을 적극 연구 중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 식, 주에서 가장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해 삶의 터전으로서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문화와 생활습관이 다양한데, 이러한 이질적인 그룹을 융합시킬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적별 주거실태와 요구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주거실태 및 요구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하여 이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범위는, 전주시 노송동 인근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지역으로서 실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쇠퇴지역의 경우 인구유입전략이 시급하며 그 유입전략의 주요대상으로 결혼이주 가족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거요구를 반영한 주거지가 조성될 경우 이들과 재생지역 상호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여겨졌다. 이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주거요구 및 선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 2) 내용적 범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및 정착에 있어서 주거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최종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의 단계는 ‘주거실태조사-주거요구 분석-주거계획 제시-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반응 조사-주민정착’을 포함한다. 이 중 본 연구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실행을 하는 두 번째 단계인 주거요구 분석에 해당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선행논문에서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정의 주거요구의 경향을 발표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추후 분석하여 국적별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고유한 특성이 있다.

### 3) 조사대상자 범위

조사대상자의 범위는 다문화가정 중 전주시에서 비교적 높은 거주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 II. 문헌고찰

### 1. 다문화사회 문제점

Jung(2012)에 의하면 다문화사회는 세계화와 국가 간 활발한 교류, 정보공유시대의 도래 등 여러 차원에서의 발전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화 간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살펴본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분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채택되어 급성장하게 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Kim(2009)에 의하면 현재 한국사회인 경우, 저출산·고령화를 맞아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 그리고 여성의 고학력 및 경제활동의 증대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독신미혼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혼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사회적 배경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가치관의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가속화 될 전망이다.

### 2.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에 의하면 국적별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체류하고 있다.

Table 1. Status of Immigrants by Marriage by Countries

Origin	Population	Gender	
		Male	Female
All	144,681	19,650	125,031
China	64,173	11,455	52,718
Vietnam	37,516	181	37,335
Japan	11,162	1,010	10,152
the Philippines	8,367	227	8,140
Cambodia	4,583	6	4,577
Other	10,725	6,548	4,177

### 3.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의 역할 및 연구필요성

Jung(2012)에 의하면 주거환경은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요소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하나의 단절된 개체가 아니라 문화를 조망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등 여러 기타 요소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거환경은 물질적 소유 및 경제성, 사회적 지위, 생활의 수준, 문화의 정체성, 등 여러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이룬 결혼이주민에게 있어 주거환경은 생존을 위한 은신처의 개념을 초월하는 한국에서의 전반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매개물

로서 집이나 주택의 개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외적으로부터 입각하여 계획되는 주거환경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를 내적으로부터 반영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와 다른 요구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이들의 현재 주거실태와 이에 대한 불만사항 등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개선기준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Jung, 2012).

### I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 2단계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그룹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고, 본 조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1차적 조사는 선행연구에서 발표된바 있고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기간을 연장하여 30부를 추가하여 총 120부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일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Methods

Contents	Research Methods	Period of Time
Preliminary Research	Group Talk	1st time 2011.4.25
		2nd time 2011.7.13
		3rd time 2011.8.26
Research	Questionnaire	2011.12~2012.3

####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사용될 설문조사 도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 3차례의 집단면담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인 전주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1명을 상대로 2011년 4월, 7월, 8월에 걸쳐 동일 국적 중복 조사, 다국적 별개조사 등 방법으로 총 3차례의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전주시 다문화가족센터이며, 조사대상자의 국적에 따라 한국어와 조사대상자 모국어(모국어 통역인원 배치)를 함께 사용하여 면담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이론적 고찰과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전주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중화권(40명), 베트남(40명), 캄보디아(40명)총 12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3월사이이며, 설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3) 분석의 틀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국적별 주거실태와 요구를 알아보고자 <Table 3>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F-검정 등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 Questionnaire Composition

Division	Items
General	Gender, original country, age, partner's age, reas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education, partner's education, occupation, partner's occupation, family members, residency duration in Korea
Physical	Residential condition- Basic conditions (Residential typs, Ownership)
	Residential environment evaluation- interior environment, Living space, Surrounding facilities
	Residential demands- Basic demands (Residential typs, Ownership), Living space demands, Intention to move to TB area, Residential demands of TB area

### IV. 결과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적별 국제결혼원인을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향상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한 원인 중 캄보디아가 7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한국이 좋아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원인 중 중국이 37.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원인은 캄보디아가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4. Reasons for International Marriage by Countries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Financial improvement	12 (30.0)	12 (30.0)	30 (75.0)	54 (45.0)	4	22.772***
Like Korea	15 (37.5)	12 (30.0)	4 (10.0)	31 (25.8)		
For better partner	13 (32.5)	16 (40.0)	6 (15.0)	35 (29.2)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국적별 국제결혼경로를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이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이주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각각 77.5%와 65.0%로 나타났고, 중국인 경우 친구/친척 소개가 5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적별 나이분포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의 나이가 20대에 집중된 반면 중국이주여성은 30, 40대가 절반이상인 것으로 보아 국제

**Table 5. Channels for International Marriage by Countries**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Marriage Information Company	9 (22.5)	31 (77.5)	26 (65.0)	66 (55.0)	4	34.132***
Friends/Relatives	20 (50.0)	7 (17.5)	14 (35.0)	41 (34.2)		
Free love	11 (27.5)	2 (5.0)	0 (0.0)	13 (10.8)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Table 6. Age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20s	19 (47.5)	34 (85.0)	32 (80.0)	85 (70.8)	6	20.984*
30s	16 (40.0)	4 (10.0)	8 (20.0)	28 (23.3)		
40s	5 (12.5)	2 (5.0)	0 (0.0)	7 (5.8)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결혼 경로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베트남 70.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년 이상~3년 이하인 경우 캄보디아와 중국은 각각 32.5%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이상인 경우 ‘중국(27.5%)>캄보디아(20.0%)=베트남(19.5%)’순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중국은 이주한 시간이 오래된 반면 베트남은 최근 이주한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Residence Period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less than 1 year	16 (40.0)	28 (70.0)	19 (47.5)	63 (52.5)	12	22.031*
1 year 3 years	13 (32.5)	4 (10.0)	13 (32.5)	30 (25.0)		
longer than 3 years	11 (27.5)	8 (19.5)	8 (20.0)	27 (22.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국적별 한국어 배운 시간을 알아본 결과 <Table 8>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가 베트남이 70.0%로 나타났고 6개월 이상~1년 이하는 캄보디아가 37.5%, 그리고 중국은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Immigrant Women's Learning Time of Korean Language**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less than 6 months	9 (22.5)	28 (70.0)	14 (35.0)	51 (42.5)	10	32.023***
6 months~ 1 year	11 (27.5)	3 (7.5)	15 (37.5)	29 (24.2)		
1 year~ 2 years	14 (35.0)	7 (17.5)	10 (25.0)	31 (25.8)		
longer than 2 years	6 (15.0)	2 (5.0)	1 (2.5)	9 (7.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2. 다문화 가정의 주거 실태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기본 주거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9>와 같이 주택유형에서는 세 개 나라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의 52.5%가 연립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45%가 19평 미만의 면적에 생활하고 있으며, 55.8%가 전세/월세 또는 무사사용의 소유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난방, 냉방, 소음, 채광 등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냄새와 환기, 전반주거환경 만족도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중국과 베트남 이주여성보다 냄새와 환기, 전반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적별 모국에서의 생활습관이 주거 실태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주거계획방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다문화 가정의 주거요구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기본주거요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1>과 같이 미래 원하는 주택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단독주택/단독빌라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캄보디아가 70.0%, 베트남이 57.5%로 모두 단독주택을 원하였고, 연립주택/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봤을 때 중국이 57.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원하는 미래주택면적을

Table 9. Living Situation of Multi-Culture Families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 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Detachedhouse/ Villa	17 (42.5)	12 (30.0)	17 (42.5)	46 (38.3)	14	N.S
Apartment/ Row house	20 (50.0)	22 (55.0)	21 (52.5)	63 (52.5)		
Temporary residential	3 (7.5)	6 (15.0)	2 (5.0)	11 (9.2)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Less than 10 pyeong	9 (22.5)	9 (22.5)	5 (12.5)	23 (19.2)	10	N.S
10 pyeong~ 19 pyeong	12 (30.0)	10 (25.0)	9 (22.5)	31 (25.8)		
20 pyeong~ 29 pyeong	12 (30.0)	17 (42.5)	22 (55.0)	51 (42.5)		
More than 30 pyeong	7 (17.5)	4 (10.0)	4 (10.0)	15 (12.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Own	11 (27.5)	20 (50.0)	15 (37.5)	46 (38.3)	8	N.S
Lease/ Monthly rent	22 (55.0)	18 (45.0)	20 (50.0)	60 (50.0)		
Free of charge	3 (7.5)	2 (5.0)	2 (5.0)	7 (5.8)		
Others	4 (10.0)	0 (0.0)	3 (7.5)	7 (5.8)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보면, 대체적으로 30평~39평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20평~29평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동거가족이 있지만 주거비용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큰 면적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 이주여성의 주거공간요구-거실, 주방, 베란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2>와 같이 거실과 주방에 대한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선호하는 베란다 개수의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거실과 주방의 양식에서는 대부분 입식을 선호하였고, 베란다 개수에서는 중국이 대부분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공간요구에서 입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간계획 시 이주여성의 음식문화와 주거문화, 생활습관을 고려한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국적별 이주여성의 주거공간요구-침실에 대해 살펴봤을 때 결과는 <Table 13>과 같이 나타났다. 침대방만 선호하는 항목에서 '베트남(40%)> 캄보디아(22.5%)> 중국(15%)'순으로 베트남이 다른 두 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침대방 하나와 온돌방 하나를 조합하는 항목

Table 10.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Differences n=120

Division	f	Mean	F	Duncan	
Heating	China	40	3.45	2.460	A
	Vietnam	40	3.58		A B
	Cambodia	40	3.15		B
	Total	120	3.39		
Air-conditioning	China	40	3.33	2.635	
	Vietnam	40	3.33		
	Cambodia	40	2.98		
	Total	120	3.21		
Noise	China	40	2.93	1.818	
	Vietnam	40	3.00		
	Cambodia	40	2.60		
	Total	120	2.84		
Light	China	40	3.00	1.885	
	Vietnam	40	3.43		
	Cambodia	40	3.25		
	Total	120	3.23		
Odor	China	40	3.28	5.498**	A
	Vietnam	40	3.25		A
	Cambodia	40	2.65		B
	Total	120	3.06		
Ventilation	China	40	3.38	11.120***	A
	Vietnam	40	3.43		A
	Cambodia	40	2.63		B
	Total	120	3.14		
Overall satisfaction	China	40	2.88	4.897*	A
	Vietnam	40	3.03		A
	Cambodia	40	2.53		B
	Total	120	2.81		

\*p<0.05, \*\*p<0.01, \*\*\*p<0.001

에서도 '캄보디아(52.5%)>중국(35%)>베트남(15%)'순으로 나타나 역시 베트남이 다른 두 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중국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은 침실의 선호도에 있어서 입식과 좌식의 조합을 선호하는 반면 베트남 이주여성은 대부분 입식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이주선호를 통해 본 주거요구비교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범위는 전주시 노송동 인근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지역으로서 이주여성들과 재생지역 상호발전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이들의 주거요구를 반영한 주거지가 조성될 경우, 이들의 주거요구를 더 나아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적별 단순이사의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14>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수와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앞서 단순 이사의향을 질문한데 이어, 어떠한 조건이 제공될 시 이사의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질문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한다고 가설했을 때의 이사여부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았다. 결과 중국은 52.5%에서 92.5%로 무려 40%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다음이 캄보디아로 55%에서 80%로 25%의 증

Table 11. Residential Demands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Detached house/Villa	17 (42.5)	23 (57.5)	32 (70.0)	71 (59.2)	4	14.055**
Apartment/ Row house	23 (57.5)	17 (42.5)	8 (30.0)	48 (40.0)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10 pyeong~ 19 pyeong	2 (5.0)	5 (12.5)	6 (15.0)	13 (10.8)		
20 pyeong~ 29 pyeong	12 (30.0)	11 (27.5)	16 (40.0)	39 (32.5)	8	N.S
30 pyeong~ 39 pyeong	17 (42.5)	18 (45)	16 (40.0)	51 (42.5)		
More than 40 pyeong	9 (22.5)	6 (15)	2 (5.0)	17 (14.2)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Own	37 (92.5)	33 (82.5)	37 (92.5)	107 (89.2)	4	N.S
Lease/ Monthly rent	0 (0.0)	1 (2.5)	0 (0.0)	1 (0.8)		
Free of charge	3 (7.5)	6 (15.0)	3 (7.5)	12 (10.0)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Table 12. Space Demands of Living Room, Kitchen, Veranda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Living room	Stand-up	26 (65.0)	32 (80.0)	23 (57.5)	81 (67.5)	2	N.S
	Sitting	14 (35.0)	8 (20.0)	17 (42.5)	39 (32.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Kitchen	Separate	21 (52.5)	24 (60.0)	23 (57.5)	66 (55.0)	2	N.S
	Opening	19 (47.5)	16 (40.0)	17 (42.5)	54 (45.0)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Veranda	1	18 (45.0)	29 (72.5)	32 (80.0)	79 (65.8)	2	12.078**
	2	22 (55.0)	11 (27.5)	8 (20.0)	41 (34.2)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Table 13. Space Demands of Bedroom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With bed	6 (15.0)	16 (40.0)	9 (22.5)	31 (25.8)	2	6.872*
Ondolbang	4 (10.0)	7 (17.5)	2 (5.0)	13 (10.8)	2	N.S
Ondolbang 1, with bed 1	14 (35.0)	6 (15.0)	21 (52.5)	41 (34.2)	2	12.522**
Ondolbang 2, with bed 1	5 (12.5)	1 (2.5)	3 (7.5)	9 (7.5)	2	N.S
Ondolbang 1, with bed 2	8 (20.0)	7 (17.5)	4 (10.0)	19 (15.8)	2	N.S
Ondolbang 2, with bed 2	3 (7.5)	3 (7.5)	1 (2.5)	6 (5.0)	2	N.S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Table 14. Comparison of Moving Intention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Yes	21 (33.3)	20 (31.7)	22 (34.9)	63 (52.5)	2	N.S
No	19 (33.3)	20 (35.1)	18 (31.6)	57 (47.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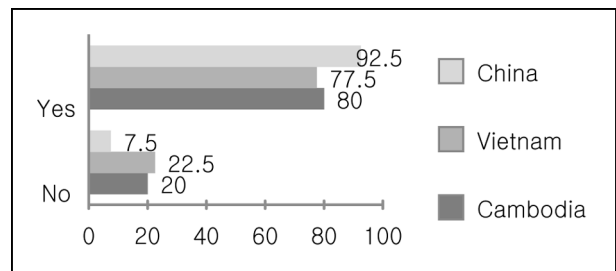


Figure 1. Comparison of Moving Intention When Demands Are Met (Unit: %, n=120)

가을을 보였으며, 베트남인 경우 기존 50%를 차지하던 응답이 77.5%로 27.5%의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국적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15>와 같이 일자리와 커뮤니티공간 등 두 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자리항목에서는 ‘중국(70%)>베트남(42.5%)>캄보디아(37.5%)’순으로 중국이 다른 두 나라보다 더욱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알

Table 15. Comparison of Conditions Preferences n=120

Division		China	Vietnam	Cambodia	Total	df	$\chi^2$
		f (%)	f (%)	f (%)	f (%)		
Housing with better conditions	Yes	25 (62.5)	17 (42.5)	15 (37.5)	57 (47.5)	2	N.S
	No	15 (37.5)	23 (57.5)	25 (62.5)	63 (52.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Formation of foreigner organization	Yes	14 (35.0)	18 (45.0)	14 (35.0)	46 (38.3)	2	N.S
	No	26 (65.0)	22 (55.0)	26 (65.0)	74 (61.7)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Job offer	Yes	28 (70.0)	17 (42.5)	15 (37.5)	60 (50.0)	2	9.800**
	No	12 (30.0)	23 (57.5)	25 (62.5)	60 (50.0)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Facilities for elderly	Yes	4 (10.0)	5 (12.5)	5 (12.5)	14 (11.7)	2	N.S
	No	36 (90.0)	35 (87.5)	35 (87.5)	106 (88.3)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Child care facilities	Yes	20 (50.0)	17 (42.5)	14 (35.0)	51 (42.5)	2	N.S
	No	20 (50.0)	23 (57.5)	26 (65.0)	69 (57.5)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Community space	Yes	16 (40.0)	10 (25.0)	5 (12.5)	31 (25.8)	2	7.916*
	No	24 (60.0)	30 (75.0)	35 (87.5)	89 (74.2)		
	Total	40 (100.0)	40 (100.0)	40 (100.0)	120 (100.0)		

수 있고, 커뮤니티공간 항목에서는 ‘중국(40%)>베트남(25%)>캄보디아(12.5%)’순으로 역시 중국이 더욱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이주여성은 한국거주기간이 다른 두 개 나라 이주여성보다 길고, 한국어 배운 시간 또한 더욱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주거실태와 요구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현재 주거실태와 미래 주거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측면을 보면 결혼이주원인에서 캄보디아는 경제적 향상을, 중국은 한국이 좋아서, 그리고 캄보

디아는 더 좋은 배우자를 위하여 등 3개 국가 사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

국제결혼 경로에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대부분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하였고, 중국은 친구/친척소개가 가장 많았다. 또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의 나이가 20대에 집중된 반면 중국이주여성은 30, 40대가 절반이상인 것으로 보아 한국거주기간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문화교류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주가 다른 국가 보다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배운 시간도 중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를 보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에서는 세 개 나라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정의 52.5%가 연립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45%가 19평 미만의 면적에 생활하고 있고, 55.8%가 전세/월세 또는 무사사용의 소유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주여성 대부분이 동거부모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였을 때,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중국과 베트남 이주여성보다 냄새와 환기, 전반주거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적별 특성에 따른 주거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국적별 차별화된 주거계획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적별 다문화가정의 주거요구를 보면 미래 원하는 주택유형을 살펴봤을 때,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단독주택/단독빌라를 선호하였고, 중국은 연립주택/아파트를 더욱 선호하였다. 원하는 미래주택면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39평 이하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동거가족이 있지만 주거비용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큰 면적은 선호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주 선호를 통해 본 주거요구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스트베드 지역으로의 단순 이사사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한다고 가설했을 때의 이사여부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결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러 가지 조건 중, 일자리와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요구에서 국가별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이 다른 두 나라보다 더욱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주여성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한국의 적응기간, 이주경로와 원인,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라는 하나의 집단으로만 취급하여 동질적인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저 출산,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 향후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에 속한 이들의 정착에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생활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요구사항에 있어서 워낙 처한 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들의 요구 수준은 사실상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일정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주시 테스트베드지역으로의 이사의향을 전제로 다양한 조건을 제공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거지가 조성될 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조성되어야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다양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등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로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주거계획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1. Cho, D. (2012). progressive policy that Changes Korea society, 594-602.
2. Jung, H. (2012).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3(3), 29-42.
3. Kim, Y. (2009). The conditions of and political plan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Forum*, 151, 29-30.
4.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1. 6). *Korea Immigr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Policy*.

접수일(2012. 12. 28)

수정일(1차: 2013. 3. 28, 2차: 2013. 6. 24)

게재확정일자(2013. 7. 12)